

“불교 이끌어 갈 인재되시라”

종단, 중비생 수행관 건립기금 2억 지원 석림회, 1억6천만원 모아 장학재단 설립

종단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조계종 스님(중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과 동문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동국대에 중비생 수행관 건립기금을 지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연스님에게 비구 수행관인 백상원 건립기금 1억 원과 비구니 수행관인 혜광사 수리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전달했다.

이사장 정연스님은 “앞으로 불교와 종단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숙사가 완공돼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고 정진하는 환경이 갖춰져 기쁘다”며 “기숙사 건립 외에도 종단도 학교재단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화계사에 들어선 백상원은

비구 스님을 위한 수행공간이다. 지난 1991년 화계사 내에 설립됐으나 지난 2003년 식수오염, 누수, 난방온수시설 고장 등으로 문제가 돼 왔다. 오랜 재건축 논의 끝에 지난 2006년 조계종 교육원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무원에서 16억 원을 후원하는 등 총 30억 원의 공사비용 가운데 21억 원을 종단에서 지원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했으며, 오는 4월2일 오후3시 신축개원 고불법회가 예정돼 있다.

동국대 중비생 졸업생 모임인 석림동문회(회장 영담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재학 중인 학인스님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나섰다. 석림동문회 스님들은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석림동문회장 영담스님에게 석림회 장학재단 설립에 써달라며 1억6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동문회장 영담스님은 5000만원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기금을 마련한 석림동문회 회원들은 1994년 입학한 스님들을 비롯해 현 석림회 집행부 스님들이다. 동문회는 그동안 동국대 중비생들에게 편안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애썼다. 서울 동국대 수행관인 백상원과 혜광사, 경주동국대인 석림원과 사라림 신축 및 재보수를 위해 뛰어나며 종단과 학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회장 영담스님은 “후배 스님들이 모아온 훌륭한 정재를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5000만원 후원의사를 밝혔다. 이어 석림동문회원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재학생들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 여러 스님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석림동문회 사무총장 장적스님은 “기금마련을 위한 기수별 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절차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성직스님(오른쪽)이 지난 24일 은사 정락스님 명의로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오른쪽)은 지난 24일 자비나눔기금을 보시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오른쪽)은 지난 24일 자비나눔기금을 보시했다.

아름다운 회향...아름다운 나눔

정락스님 유지 따라 6000만원 보시 고불암주지 선각스님 3000만원 기부

일생동안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다 지난 2월17일 원적에 든 정락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들과 논의해 기금을 6000만 원이 조계종에 전달됐다.

정락스님의 상좌를 대표해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화성 만의사 주지 성직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들과 논의해 기금을 전하게 됐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6000만원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으로 3000만원,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교육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줘 너무나도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도 “정락스님의 유지가 헛되지 않도록 포교사업에 잘 쓰겠다”고 인사했다. 성직스님은 “은사스님의 유지에 따라 상좌인 제가 대신 전달했을 뿐”이라며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화성 만의사에서 열리는 은사스님의 49재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선각스님은 일본지진구호기금과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호국연무사 건립불사금, 민족문화수호위원회 활동기금으로 각 1000만원씩 총3000만 원을 기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여러 모로 어려우실텐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각스님은 “고불암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종단에도 누를 끼쳤는데 이제는 정상화되고 해인사를 장건주로 한 사찰 등록도 마무리 지었다”면서 “고불암 운영위원들이 심시일반으로 보시한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각스님은 “해인사는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와 분말사 모연 활동을 통해 자비나눔기금을 모으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해인사 분말사 일동으로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동국대 이사장 정연스님에게 중비생 수행관 건립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석림동문회 스님들이 석림회장학재단 설립기금 1억6000만 원을 석림동문회장 영담스님에게 전달했다.

‘응용불교’ 강의계획안 발간 불학연구소, 개편 승가교육안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원철스님)는 개편된 승가교육안에 따른 (응용불교) 강의계획안을 지난 23일 발간해, 초기 선 대승 한문 불전 등 7권의 강의계획안을 모두 완간했다.

‘응용불교’는 4학년 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불교를 현실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이다. 교과과정은 ‘비교종교학’ ‘불교사회경제학’ ‘불교사회복지’ ‘불교생태학’ ‘전법교화학(설법론, 법사론, 상담론)’ 등을 비롯

해 인문교양 관련 교과목으로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수행자를 위한 읽기와 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원 상임연구원 원영스님은 “응용불교는 현대사회의 삶과 역사를 잘 이해함으로써 장차 학인 스님들이 어떻게 불법을 펼치며 보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과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은 (불교와 동서철학) <불교와 과학>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재를 발간할 계획이다. 여현경 기자

31회 구족계 수계산림 4월1일 통도사서 회향

조계종 제3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지난 24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시작됐다. 4월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수계산림에는 148명의 사미와 126명의 식자마나니가 참여해, 비구(니)계를 각각 수지하게 된다. 수계식은 회향일인 4월1일 오전7시30분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고산스님이 비구(니)계를 설한다.

한편 제19회 단일계단 식자마나니계 수계산림은 오는 4월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 봉림사에서 봉행된다. 여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현장에서

취재자 사찰에 들렀을 때 간혹 눈에 거슬리는 게 현수막이다. 현수막의 내용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현수막이 걸린 위치가 문제란 것이다. 일부 사찰에 선 가람의 중심인 대웅전을 비롯해 주요 전각에 범죄와 기도, 불사 일정 등을 담은 플래카드를 마구잡이로 걸어놓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가장 좋으니 홍보의 차원에서 그보다 적당한 지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눈길을 어지럽히는 광고의 물결 때문에 진정 절에서 느껴야 할 감동이 희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물품판

사찰 현수막에 대한 제안

매와 같은 상업적 광고, 기복적인 신행을 부추기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처님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광경을 만날 땐 눈살이 더욱 찌푸려진다. 마음을 쉬러 왔는데 쉬기가 힘들고, 시끄럽고 치졸한 세속을 피해 왔는데 세속에 버금가는 번잡함에 지친다.

전각의 아름다운 전경을 오롯이 사자에 담으려 할 때에도 현수막은 애물단지다.

물론 삼보(三寶)의 전승과 의호를 위해 사찰의 범죄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고와 동참 권유는 불가피하다. 불교 본연의 역할인 수행과 전법을 위해선 범죄

는 열려야 한다. 아울러 신도 교육은 활성화돼야 하며 불사도 지속돼야 한다는 것도 자명하다. 다만 형식이 부적합할 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사찰의 각종 대소사에 관한 현수막을 걸어두는 별도의 거치대를 마련하고, 전각은 성스러운 종교 공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겨두면 좋다는 게 작은 제안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3월14일, 22일 총무원의 결과

	정념스님 순천 선암사
	양산스님 논산 개태사
	주오스님 밀양 반야정사
	현각스님 강릉 대성사
	희원스님 울성 미타사
	법정스님 예산 향천사
	범초스님 문경 윤암사
	묘광스님 양산 증산사
	정승스님 경주 기림사
	효웅스님 포항 보경사
	일운스님 울진 불영사
	선해스님 함양 용추사
	일문스님 순천 함림사
	현경스님 부산 보덕사
	해인스님 달성 보은정사
	해철스님 가평 죽령사
	자오스님 아산 윤정사

팔만대장경 조성 천년기념

2011 호국팔만대장경정대불사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간행 된지 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고려인의 숨결이 해인사로 전해져 호국팔만대장경정대불사로 이어 온지 벌써 51회가 되었습니다. 해인사는 자랑스런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의 발원을 모으고 나아가 국민과 인류의 평화 및 안정을 발원하는 제51회 2011 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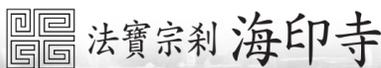
초창법문_심산 스님

심산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통도사승가대학을 마쳤다. 서울 대성사 주지,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부산 흥법사 주지로 있으면서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사)동원 이사장, 부산 금정경찰서 경승실장, 국제불령회 한국부산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불사와 영가천도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및 온라인, 계좌입금 접수는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일정표

- 4월 8일 금요일에 도착하시는 신도분들을 위하여 대적광전에서 철야기도를 갖습니다.
- 4월 9일 토요일
 - 9:30 식전행사(영산회상, 육법공양)
 - 10:00~12:00 입계 및 천도의식
 - 12:00~13:00 공양
 - 13:00~14:00 법문(심산 스님)
 - 14:00~16:00 호국발원 행진(대적광전→대장경관전→구광루 마당→해인도)



• 지역별 차량을 이용하시면 행사에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금강자비회 : 02-487-8500, 011-211-8815(향보산)
- 서울 봉산 선원 : 02-387-8578, 010-6250-8859(김호주)
- 서울 용진신행회 : 02-2279-1191~3
- 대전 미호관 광 : 042-532-2727, 011-9801-2722(대홍사)
- 포항 청록관 광 : 054-246-5731~3, 010-3512-3969
- 울산 태화관 광 : 052-227-8282, 010-9578-4645(정보리화)
- 마산 수양관 광 : 055-833-9797, 011-553-1705(김명근 대표이사)
- 대구 서라벌관광 : 053-311-2213, 011-531-2213(이무용 이사)
- 부산 금강정진회 : 051-635-7878, 011-833-0383
- 부산 약사정진회 : 017-587-6977(강철보화)